

특별기고

한자 교육의 추진과 정자 표기를 위한 교학의 노력 ⑨

8. 각종 비문·현판에서의 한자 오기



박동규
영남대학교 학장

2005년 10월 중순에 지역의 명현(名賢)의 묘소를 참배했는데 비문(碑文)에 송모비(宋慕碑)에서 '慕' 자에 부수(部首) 부분이 '小' 자야 하는데 '小'자로 1획을 탈루해서 오기했다는 발견한 적이 있는데, '小'·'小' 자는 '心'자와 같은 부수(部首)로 통용됨을 이해하도록 지도해서 익혔다면 바르게 표기하게 된다.

2005년 11월 중순에 경기2청사를 방문하는 길에 도청 앞 건너 공원에 새로 수립(建立)한 비를 찾았는데 비문 가운데 추모(追慕)의 '慕' 자의 아래 부분의 '小' 자의 표기를 다르게 표기했는지 확인했는데 '小' 자를 1획을 탈루해서 표기를 했다.

2003년 10월 휴일에 강화 모 고찰(古刹)을 친목회원과 함께 찾았는데 각종 현판(懸板)에서 한자오기를 여

러 개를 발견했는데 몇 개를 지적하면 강설당(講說堂)에서 '講' 자에서 가로 굽는데 있어서 '一'자를 탈루했고, 극락암(極樂庵)에서 '窟' 자는 '宀' 부수자인데도 불구하고 원자(原字)의 부수인 '宀'자로 표기한 것은 적절한 표기가 아닌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애홍승도(愛紅僧徒)에서 '血' 자에서 '皿' 자 위에다가 '一'자를 첨가해서 오기했다.

모 서원(書院) 상량문(上梁文) 가운데 중건고영복원(重建高影復元)에서 復元을 復圓으로 잘못 표기했는데 復圓은 일식·월식이 끝나고 해·달이 본디의 둥근 모양으로 돌아감을 뜻하는 단어다. 복원을 복원(復元) 또는 復原으로도 표기하기도 한다. 또 재실(齋室)의 '齋' 자의 '示' 부분에서 '一'의 획을 탈루(脫漏)해서 표기해 놓았으니 오기다.

모 중학교에 교정(校庭)에 개교기념 비문 가운데 오자가 10여 자나 되어서 학생이 독해(讀解)할 수 있을 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미 세어져있는 비는 차치(且置)하고라도 새로 비문을 새길 때는 국한문(國漢文) 혼용(混用) 또는 병기(併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쉽게 접해서 모두 독해할 수 있게

국어로 표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다. 정작 읽어야 할 학생이 읽지 못한다면 비를 세운 의미가 없다.

필자는 각종 비문·현판 가운데 오자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근간에 관심을 갖고 수 개 소의 명소를 방문해서 알게 되었는데 곳곳에 수립(建立)한 묘비(墓碑)·신도비(神道碑)·공적비(功績碑)·기념비(紀念碑) 등 각종 비문 가운데에는 상당수의 오자가 많을 것으로 추량(推量)하게 된다. 비석에 새겨진 후는 수정(修正)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원고(原稿) 작성부터 필사(筆寫)·각석(刻石)하기까지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오탈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당초 원고작성 과정에서 글씨를 흘림체로 쓰면 타인이 잘못 알기 쉽기 때문에 정자로 정서(正書)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한자의 오기에 대하여 예를 들면서 오자를 지적해왔는데 교학적(教學的)인 입장에서 한자·한문 표기의 오류가 너무 많아서 이를 바로 잡아서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자의 기초는 점·획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필사(筆寫)하는 공부를 우선하며, 한자의 기본부

수(基本部首) 214자를 육서원리(六書原理)를 도입해서 능동적(能動的)으로 학습하도록 자원(字源)을 밝혀서 지도하고 학습토록 해야 한다.

원형(原形)을 변형(變形)하거나 한 점 한 획을 탈루(脫漏)·첨가(添加)해서는 결코 되지 않으며, 한문의 초보 학습자는 한자의 자형(字形)·자의(字聲)·필법(筆法)의 기초학을 우선하여 정확하게 익혀야 한다.

서예(書藝)나 한시(漢詩)를 공부하는 사람 역시 기초가 되는 한자·한문공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서예지도에서도 '永'자 필법을 바탕으로 잠두마제(鑿頭馬蹄)를 기초로 익혀 우선적으로 해서(楷書)를 익힌 다음 다른 서체(書體)를 익혀야 하지 않겠는가 한다.

호적부의 전국 전자화(電子化) 작업이 추진되면서 한자표기가 한자의 기초 부족으로 잘못 된 한자표기가 많다고 국회의원 국감(國監)에서 지적하여 대법원 책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시정(是正)을 촉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직접 전자작업을 하는 공무원이 한문독해 능력이 부족해서 기인(基因)했다고 할 수 있다.

특별기고

생태도시를 위한 조건

대지윤리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사유와, 마음의 생태학



공명수교수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생태학(ecology)이란 단어는 집을 뜻하는 'oikos'와 논리를 뜻하는 'logos'의 합성어이다.

생태학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집의 논리'로 해석할 수 있고, 이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우주만물 일체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를 이루는 살림집이다'는 뜻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생태학은 자연과 인간, 동물과 식물, 생물과 무생물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삶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는 우주의 살림집으로 통한다.

생태학이라는 우주의 살림집은 우리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객체적 의미에서의 환경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우주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적 삶의 장소인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명의 껍데기를 뚫고 인간의 사회적 관계 및 대자연 관계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자연으로부터 삶의 본질을 배우고자 하는 의식구조의 혁신, 즉 마음의 생태학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마음의 생태학을 통한 우리의 의식구조의 혁신을 위해 생태주의와 그것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마쉬(George Perkins Marsh)는 『인간과 자연』(Man and Nature)에서 숲을 원시림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최고의 대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마쉬는 인간문명의 필요에 의해 강 연안의 나무를 무자위로 발목했을 때 가뭄이나 홍수의 피해를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숲과 함께 토양 전체를 원시 상태로 보존하자고 제안한다.

인간문명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입장은 생태연구의 선구가 되고 있음에 틀림

없다. 하지만, 숲과 토양을 원시상태로 보존하지는 그의 주장에는 자연생태계 보존의 경제적 타당성과 함께 인간의 도덕적 책무가 담겨 있다. 그의 논리에는 인간이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우월하기에 자연을 관리하여 그 혜택을 복원시키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는 인간중심주의가 흐르고 있다. 그는 인간문명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간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진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생태학적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메리 오스틴(Mary Austin)의 입장은 마쉬의 견해와는 대조적이다.

마쉬는 그의 주요 저서인 『갈수의 땅』(The Land of Little Rain)에서 사막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새로운 의미에서의 대지윤리의 지침을 제시한다.

그의 대지윤리의 핵심은 모든 만물에 내재적 가치가 흐르고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들 사이에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연이 지닌 경제적 가치 너머 심미적, 미학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이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의식과 물질세계가 확연히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유아론적인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자연이 긴밀히 연결될 때 인간의 운명된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네스(Arne Naess)를 비롯한 심층생태학자들은 인류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연친화적 동양사상을 내세우고 있다.

심층생태주의자들은 노장사상나 선불교를 동양적 지혜의 모범으로 삼고 있으면서, 물아일체 혹은 범야일체의 정신이랄바 자연과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삶의 지혜라고 여기고 있다.

이들은 자연을 바라보는 궁극적 규범으로 자아실현의 원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자연과의 일치를 인식하는 과정이면서도 동시에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실현의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와 연결된다.

하지만, 명쾌한 분석을 추

구하는 일부 생태학자들은 자연친화적 동양사상에 내포된 신비주의적 추상성에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이러한 신비주의에 내포된 생명평등의 합리적인 원리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이들은 자연친화적 신비주의는 심층생태주의가 표방하는 근본주의와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폴 테일러(Paul Taylor)는 모든 생명체가 인간의 필요와 무관하게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개별 생명체가 당연히 지니고 마련된 목표지향적 삶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모든 생명체가 저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신비주의나 근본주의에는 귀중한 생명체를 가운데 궁극적인 선택의 모호함이 내포한다는 것이다.

캘리코트(J. B. Callcott)는 생명평등주의의 약점을 보완하여 생태학적 전체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 개별적인 존재나 행위에 대한 마땅한 근거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체는 생태계의 안정과 심미적 가치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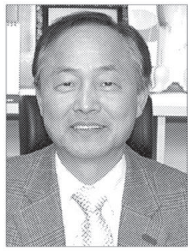
이러한 내재적 가치로 인해 생태계는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대지윤리를 지닌다. 즉 자연이 지니고 있는 자아실현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인간 개개인에게는 자연을 바라보는 정서적 느낌이나 태도나 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다. 캘리코트의 입장에는 앞서 살펴 본 마쉬의 인간중심주의적 견해와는 정반대로 지나친 정도로 자연중심주의적 도그마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급된 몇몇 생태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살아 있는 야생적 자연을 그 자체로 만나 그것의 면모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무목적론적 사유의 과정이 생태학적 사유의 근본 토대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포퓰리즘적 외양에 얽매어 삶의 본질적 사실들을 망각하게 만드는 오늘날 문명사회에 대한 마음의 생태학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태학적 감수성은 대지윤리의 내재적 가치를 향한 무목적론적 사유를 통해 더욱 깊어질 것이다.

교육에세이 72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이호연
영남대학교 교장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해마다 맞이하는 스승의 날을 기해서 마스크에서는 학부모와 선생님을 간의 부적절한 면을 부각시키는 사례가 있어 속 울해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슴 조려본다.

어린 시절 자리면서 어른들께서 ‘스승의 그림자는 안 밝는다.’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그래서 선생님 곁에 다가서는 것이 부담스럽기까지 했다. 그 옛날이야 모든 면에서 선생님은 그 지역에서 추앙의 대상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나 지금이나 그 기능이 변한 것은 아니다. 다만 변한 것이라면 과연 선생님이 그 지역에서 옛날처럼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가 문제이다.

가끔 교육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농사에 비유하곤 한다. 그래서

You And I	그대와 나
Henry Alford	헨리 앨퍼드
<p>We ought to be together—you and I; We want each other so, to comprehend The dream, the hope, things planned, or seen, or wrought. Companion, comforter and guide and friend, As much as love asks love, does thought ask thought. Life is so short, so fast the lone hours fly, We ought to be together, you and I.</p>	<p>우리는 함께여야 합니다. 그대, 그리고 나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원합니다. 꿈과 희망과 계획하고 보고 이루어낸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동반자여, 위안자여, 친구이자 내 삶의 안내자 사람이 사랑을 부르는 만큼 생각이 생각을 부릅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고, 쓸쓸한 시간은 쓸쓸같이 지남니다. 그대와 나, 우리는 함께여야 합니다.</p>

자식을 교육하는 것을 가리켜 ‘자식 농사’라고 일컫는다. 교육을 농사에 비유하는 것이다. 농사는 경작하다가 병충해에 노출되면 고사되어 가다가도 약을 뿌리면 다시 잘 경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자식농사’는 그렇지 않다. 첫 교육적인 시도가 여의치 않아 교육을 그만둔다면 이를 만회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또한 ‘자식농사’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 원만하게 잘 추진해야 한다. 교육은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간의 인간관계 정립이 원만하게 잘 맺어져야 한다.

필자는 오래 전에 들은 교육에

관한 일화를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모 수상께서 자신의 아들 담임선생님을 집으로 모신 후 담임선생님께 큰 절을 했다는 일화다. 국가의 수상이지만 자연인으로 보면 자신의 아들 담임선생님은 엄연한 담임선생님인 것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담임선생님께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인사를 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화를 찾아본 일이 없다. 존경받고 싶어서가 아니다. 교육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한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자녀에게 심어 주기 위해서 수상은 담임선생님께 인사를 한 것이다.

물론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어른들끼리 대화로 해결하여 자녀가 전혀 감사를 알

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쉬운 것은 등교 거부해 해 자녀들을 앞세운 경우가 있다. 이미 교육은 추스리기 어려운 국면까지 진전되고 만 안타까운 일이다.

선생님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야 마땅하지만 완전무결할 수는 없는 일에서 더러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관련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사려 깊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본다.

Henry Alford의 You And I 시는 Henry Alford가 장가가는 제자에게 써서 주기 위해서 수상은 담임선생님께 선물로 준 시다. Henry Alford의 시처럼 그대와 나는 꿈과 희망과 계획하고 보고 이루어낸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원한다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려본다.

6월 4일은 포천시정 보궐선거일

금품·음식물·찬조금

주는 후보 7년 이하의 징역
받은 주민 50배 과태료

축의금·조의금

주는 후보 5년 이하의 징역
받은 주민 50배 과태료

모임에 찬조물품을

주는 후보 5년 이하의 징역
받은 주민 50배 과태료

관광·야유회를

보내주는 후보 5년 이하의 징역
공짜로 가는 주민 50배 과태료

선거운동용 산악회·포럼을

만드는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신고전화

1588-3939

(선거선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